#200계 대-뉴 스레터-2 2008.7.30 4:18 PM 페이지 1

정의의 종
SNU LAW Newslett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07년 Vol.9

법대 로스쿨 준비 만전

서울법대에서는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통과된 이후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건식 교수)를 발족하여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우선 시설 면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15동 3층에 모의법정을 개관한 것을 비롯하여 강의실 환경을 개선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앞으로도 15동을 증축하고 법학도서관을 확장하며, 기존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최선의 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계와 학계에서 총 15명의 교수를 충원하는 등 교수진을 확충하고, 각종 첨단 과목과 전공 심화과목을 포함하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하고 다른 로스쿨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도 힘쓰고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경쟁력, 공익인권, 기업경쟁력, 공공정책 등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관련기사 4면)

INDEX

2면 ····· 교수동정
3면 ····· 신간소개
4면 ····· 법대 로스쿨 기사
5면 ····· 법대 로스쿨 기사
6면 ····· 최고지도자과정
7면 ·····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국제학술교류

해외 방문 및 외국 교수 본교 방문

지난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본교 호문혁 학장과 김화진 국제부학장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학을 방문하였다. 본교 학장단은 텔아비브대 총장과 부총장을 방문했으며 세계적인 민법학자인 Hanoch Dagan 교수가 학장으로 재직 중인 법대 학장단과 상호 교류협력을 협의하고 학생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 한편 10월 8일에서 10일까지는 텔아비브법대 학장과 학생부학장이 본교를 방문하였으며, 11일과 12일에는 국립 대만대 법대 학장단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국제학술활동

9월 14일에는 본교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가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제1회 베세토 법과대학 학술회의를 주최했다. 같은 날 본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따른 규제체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월 11일에는 본교에서 대만국립대 법대 교수들이 본교 교수들과 더불어 "Current Legal Problems in Taiwan and Korea : A Comparative View"라는 주제하에 연례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한편 여름방학 동안에는 본교 기술과법센터에서 외국 Summer Promgram을 진행하였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미국과 EU의 지적재산권보호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Comparative Law Study of US and European IP Protection Systems)"이라는 주제로 열린 일본 도쿄대 로스쿨 섬머스쿨과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Intellectual Property and Tele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Summer Institute at Boalt Hall이 그것이다.

하계 학위수여식

지난 8월 30일 목요일 2시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하계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보고에 이어 법과대학 호문혁 학장과 이재후 법대동창회장의 축사와 학생 대표 김주영 박사와 김범준 학사 학위 수여자의 답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8명, 석사 15명, 학사 76명이 학위를 받았다.

호문혁 학장은 졸업식사에서 본교에서는 단순한 법적 지식보다도 무엇이 정의인가를 생각하도록 가르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정의의 사도로 활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재후 법대 동창회장은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졸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교수동정

● 조국

조국 교수는 5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sian Law Institute 제4회 학술대회에서 "The Death Penalty in Korea: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을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에 취임하였으며, 7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8월부터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성낙인, 정종섭

성낙인 교수와 정종섭 교수는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개최한 제2회 아시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제1회 아시아헌법학자대회는 200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다.
제2회 대회에서도 아시아 16개국의 헌법학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의 헌법변동과 아시아 입헌주의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성낙인 교수는 메모리얼 스피치를 통하여 아시아 헌법학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정종섭 교수는 아시아헌법학자대회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한편 제3회 아시아헌법학자대회는 2009년 대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인섭

'NGO와 법의 지배'는 시민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나 구조책, 법 개정 활동 등을 논의함으로써 법적 균형성과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배우는 강좌이다. 수강생은 현재 NGO활동가 28명, 정부기관 실무담당자 혹은 간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인권단체, 환경단체, 종교, 언론, 법무부, 청와대, 경찰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수업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며, 전반부는 강의로, 후반부는 NGO활동가, 정부기관, 법학교수, 외부 전문가 4자의 쟁점토론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로써 법의 문제를 행정, 입법, 사법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와 정부기구와 NGO활동가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정인섭

정인섭 교수는 이번 학기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인권법 공개강좌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현재 약 6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세일정은 다음과 같다.

- **9월 11일**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UN의 인권보호 체제/ 정인섭(서울대 법대)
- **9월 18일**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국제NGO 활동/ 김기연(유엔인권정책센터)
- **10월 2일**
  국제이주와 인권/ 이정혜(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
- **10월 9일**
  여성차별방지 협약/ 신혜수(여성차별방지위원회 위원)
- **10월 16일**
  장애인권리 협약/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 **10월 30일**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11월 6일**
  난민지위협약과 한국의 난민정책/ 박찬운(한양대 법대)
- **11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 최태현(한양대 법대)
- **11월 20일**
  국적과 민족, 외국인/ 이철우(연세대 법대)
- **11월 27일**
  국가별 인권위원회/ 정인섭(서울대 법대)

● 최종고

최종고 교수는 지난 방학 중 유럽에 머물며, 모교인 프라이부르그대학 개교 550주년 기념식과 헤이그에서 열린 이준 열사(법관양성소 1회졸업생, 검사) 서거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어서 튀빙겐대학에서 개최된 독일-동아시아포럼(Deutsch-Ostasiatisches Forum)에 참석하고, 폴랜드 크라카우에서 개최된 세계법철학대회(IVR)에서 "비교법철학의 이론과 실천"(Comparative Jurisprudence: Theory and Practice)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회의 집행위원(이사)으로 4년간 활동한 최교수는 이번에 연임되기도 하였다.
이 학회는 2년 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데, 최교수는 특히 동아시아 법철학의 연구성과를 세계법철학계에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계기라고 한국 법학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200계법 대-뉴스레터-2 2008.7.30 4:19 PM 페이지3

신간소개

● 김재형『민법론III』(박영사)

김재형 교수가 2005년 이후에 민법에 관하여 발표한 글을 모은 것으로 대부분 판례를 살펴보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종중, 금융법래의 당사자, 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법안, 근저당권 등 민법의 해석론에 관한 글뿐만 아니라, 동산담보제 같은 입법론을 다룬 글도 있다. 김교수는 법이론과 법현실의 상호관계를 역설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해외의 법제도를 변형하여 수용할 때는 이런 법률이 우리의 법현실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엄밀하게 분석해야만 창조적인 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최종고『법철학 제3판』(박영사)

법철학 제2판 발간 후에 소장학자들의 법철학 연구서가 나오고, 법철학의 현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세계 법철학계와 유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런 흐름에 따르면서도 본서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제3판에는 새로 나온 문헌들과 논의를 추가하였다. 총론에서는 법철학이란 학문에 대한 소개와 법의 개념과 이념, 법철학의 역사, 여러 사상가들의 법철학, 다른 사상과 연관된 법철학을, 각론에서는 보다 법철학에 대한 심층적인 개념을 다루었다.

● 『한국과 프라이부르그』(프라이부르그대학 한국동문회 엮음)

프라이부르그대학 한국동문회에서 프라이부르그대학 개교 5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프라이부르그(Freiburg und Korea)라는 기념문집을 펴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프라이부르그대학교 법과대학은 유학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02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2002년부터 2년 주기로 지금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 신동운『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법문사)

2006년 7월 형사소송법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시하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최신 판례의 반영 요구를 받아들여 초판의 판례들을 토대로 하면서 2006년 말까지 공간된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판례를 충실하게 분석 ·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사항색인을 보다 세분화함과 동시에 그 위치를 본서의 앞부분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 신동운『간추린 신형사소송법』(법문사)

이번 신형사소송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형사소송법을 압축적으로 해설하여 출간되었다. 기존『형사소송법』제4판을 간추려 놓은 형식으로, 그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판례나 문헌의 상세한 인용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아울러 쟁점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를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해설의 대상이 되는 법리가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되는 맥락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판례를 인용하였다.

● 성낙인『공직선거와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사)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선거방송심의제도의 법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어서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쟁점사항, 그 직무범위와 법적 권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정종섭『기본권의 개념』(금붕어)

기본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새로운 모색을 해온 결과로 1차적으로 기본권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한 후 기본권의 개념 정립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기본권의 개념을 분명하고, 기본권과 기본권 규정을 부결하고, 기본권의 도출에 대해사도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였다.

➡ 1면에 이어서 법대 로스쿨 준비 만전 기사

고학수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박사 과정은 미국 Columbia University에서 로스쿨의 Juris Doctor 학위와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Hughes Hubbard & Reed LLP 로펌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거쳐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부임하였다.

김종보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행정법을 전공하였다.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하였으며, 사법연수원과 법관연수원에도 출강한 바 있다.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주택공사 주거환경위원회 위원, 국토도시계획학회 법제분과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박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 LL.M 과정을 밟았다.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뉴욕 Sullivan & Cromwell 법률사무소에서도 근무하였다.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직과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위원직, 증권거래소 선물옵션시장 발전위원직을 수행중이다.

석광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11기)을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을 강의하였으며 200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거래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거래법, 국제사법(협의),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상사중재법과 국제도산법에 대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할 계획이다.

신희택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미국 예일법과대학에서 LL.M. 과정과 법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자문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1995년 이후 사법연수원 강사로 강의 중이며, 앞으로는 그간 실무에서 쌓은 경험이 이론과 잘 조화되어 새로운 법학도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WTO 대책반 자문위원(경성카르텔분과)으로 활동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와 카르텔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학과에 진학하여 현대 미국사회의 인종과 종족정체성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Northwestern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여 J.D.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 부임하였고, 1999년부터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8년부터 1년간 통상교섭본부의 통상전문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통상, 환경협상에 참가한 바 있다.

이효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재직하면서 통일부 파견으로 체코공화국 외교관계연구소 연수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장기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검찰에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2007년 3월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봉직하였다.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으로 활동 중이다.

전종익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에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로서 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이론 사이에 조화롭게 다리를 놓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정선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법학박사(Dr.iur)학위를 취득하였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중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 및 출판이사와 연구이사로 활동 중이다.

정순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금융기관에서 국제금융실무를 담당하다가 호주의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주로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 및 증권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규제에 관한 법을 연구하고 있다.

한기정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t. John's College)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로 부임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강의하였다.

#200계법 대-뉴스레터-2 2008.7.30 4:19 PM 페이지6

최고지도자과정

제6기 졸업자 명단

지난 3월 5일 입학식과 더불어 일정을 시작한 제6기 최고지도자과정은 8월 23일 수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제6기 과정에 참가한 수료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법대최고지도자과정 6기 수료식 ▲

권오춘	국어고전문화원 이사장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김병철	수원지방법원 지법판사	**이기욱**	법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김태헌	GS메탈㈜ 대표이사	**이대경**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김한성	아이씨코퍼레이션 이사	**이미경**	국회의원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나경원	국회의원	**이부열**	플래닛 팔이 이사
나영돈	㈜기린 이사	**이옥기**	KT 본부장
문 호	한국전력 부사장	**이진걸**	대한항공 상무
박용주	SK텔레콤 법무실장(상무)	**이희종**	동일산업 전 대표
박의승	대우건설 전무	**전옥현**	국가정보원 국장
박진현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	**정기환**	삼성렌탈㈜ 대표이사
백정기	경기CC 회장	**정상용**	서원아이앤비 대표이사
백창현	삼일회계법인 상무보	**정우철**	(주)일삼 회장
서일성	㈜보탬플러스 회장	**정유성**	삼성전자 인사팀 전무
손관수	CJ GLS 상무	**조강언**	다산건설㈜ 대표이사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천성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신용진	MBC 보도본부장	**최고일**	도로공사 민자도로처 처장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장	**최규명**	동양토탈㈜ 대표이사
양승국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오명철	주택공사 상임이사	**황성규**	감정평가사
유인창	유호전기공업㈜ 상무이사	**황종섭**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윤종현	GM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제7기 과정 소개

제7기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에는 법조계 인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기업과 공기업 임원, 회계사와 의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각 분양의 지도자 총 4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제7기 과정은 9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2차례에 걸쳐 부부특강도 계획되어 있다. 특히 10월 6일에서 7일까지 있었던 야외특강과 2008년 1월 25일에서 27일로 예정된 졸업여행이 있어, 수강생들에게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고지도자과정 동창회장 인터뷰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2대 동창회장에 취임한 김양옥 회장은 서진종합건설(주), 로드랜드 골프&빌리지, 일본 로드랜드 와카야마골프클럽 회장 등 건설업에서 레저산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으로, 동창회장의 직위를 맡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고 동창회장직을 차기 회장대로 넘겨줄 때에는 스스로 '미련은 남아도 후회는 없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했다.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요직에 종사하고 있는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동문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먼저 솔선수범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실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서울법대 ALP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간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총동창회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지었다.

#200법 대-뉴 스레터-2 2008.7.30 4:19 PM 페이지 7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24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 교과과정

1996년 개설 이래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각 분야의 최근 법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 온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에서는, 2007년 가을 제24기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와 법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제23기 과정

이번 제24기 과정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법대 서암홀에서 2교시씩 강의를 진행했다. 각 강의는 50분의 강의와 30분의 토론, 질의, 응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으로는 교수를 비롯하여 로펌, 판사, 검사, 시민단체 활동가, 예금보험공사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 성과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은 실무 일선에서 법시스템을 움직여 가는 전문가들에게 최신의 전문적인 법학 지식을 제공하였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연 혁

1996년 개설 이후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한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996년의 1기부터 2007년의 23기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 금융거래법, 조세법, 보험법, 행정소송 · 행정법,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금융거래법, 노동법, 인터넷과 법률, 기업의 갱생 · 도산과 법, 국제통상법 · 정책과 실무, 조세법, 인터넷과 법률 Ⅱ,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통합도산법, M&A의 이론과 실무, 자본시장통합법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어 왔다.

제24기 강의 내용

9. 3	1교시 2교시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과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9. 10	1교시 2교시	경영자의 사익추구와 회사법의 역할 경영자의 회사법상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
9. 17	1교시 2교시	상법개정안 해설(1) 상법개정안 해설(2)
9. 20	저녁7시	서울대 법대 학장 초청 만찬
10. 8	1교시 2교시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
10. 15	1교시 2교시	증권거래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 증권집단소송과 경영자의 책임
10. 19(금) ~10. 20(토)		블록세미나(1박2일) 3주제 특강, 조별 과제수행 협의
10. 22	1교시 2교시	주주대표소송 사례연구: L화학 기업지배구조펀드
10. 29	1교시 2교시	지주회사체제와 이사회의 운영 도산기업과 경영자의 책임
11. 5	1교시 2교시	내부통제시스템 경영자책임 감면과 임원책임보험
11. 12	1교시 2교시	기업범죄의 통제 : 형법의 역할과 한계 경영자 형사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1. 19	1교시 2교시	자본거래와 임무해태 : 배임죄 사례연구: S□, 한O그룹
11. 26	1교시 2교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례연구: 대O그룹, S*글로벌
12. 3	1교시 2교시	전환사채 저가발행 : 기존의 이론과 판례분석 전환사채 저가발행 : OO랜드 사례연구
12. 10	1교시 2교시	LBO, MBO와 이사의 형사책임 LBO 관련 판례분석
12. 17	1교시 2교시	내부자거래 제한의 이론과 판례 금융기관 임원의 민형사책임
12. 22	13:30~18:30	조별 발표 및 평가
12. 26	19:30	수료식

Interview

장지용 북경대 교수 인터뷰

지난 9월 19일 오후 뉴스레터 기자들이 17동 318호로 북경대 법대 교환교수 장지용 교수를 찾아 인터뷰했다. 장교수는 북경대에서 경제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밟았고, 국제경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북경대 법대 부교수이자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교수는 'On the EU Monetary and Financial Law' (The Law Press, China, 2006)와 'On the Legal Issues of Renminbi's Convertibility' (The Commercial Press, China, 2004) 등을 저술했으며, 2002년에 북경대 An-Tai 교육상을, 2003년에는 An Zijie 국제무역연구상을 받은 바 있다.

장지용 교수는 교수로서 외국에서 강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의 법체계, 문화, 교수, 학생들을 잘 알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캠퍼스가 매우 아름답고 전체 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법대가 매우 국제화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장지용 교수는 무역, 투자, 과세와 관련된 외국경제법을 주로 연구하는데, 학술적인 연구는 여러 다양한 분야를 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WTO법, EU법 등을 연구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에서 주로 중국기업법과 외국경제법에 초점을 두고 비교 연구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에서는 중국법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전반적인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중국사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법체계와 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강의를 개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법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통을 잘 따르고 그것이 중국보다 나은 것도 있는 듯 한데, 윗세대를 공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과감히 교수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하며 항상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각수 동문 인터뷰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이스라엘대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기여한 신각수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하였다. 신각수 동문은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1977년 본교를 졸업한 이래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 이스라엘 대사로 재직 중이다.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신 동문은 중동지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외교정책 수행에 기여하고,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1970년대 후반만 해도 간부의 다수가 동문이었음을 회상하며,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한국이 처한 어려운 국제 현실 속에서 외교관의 길을 택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인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 동문은 강소국이며 국민의 애국심이 유달리 강하다는 점을 들고, 중동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균형적 접근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라 답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외부환경, 국민성 등 유사한 점이 많다며 이민사회 내부의 사회적 격차로 인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민주주의의 유지로 거의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치안사정이 외부인식보다는 안정되어 있으나 분쟁지역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세계화 시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놓고 외교관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능력을 발휘할 다양한 분야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조언하였다.